

20세기 전반기 한국어 연구의 몇 문제

이지영*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zeezero@sogang.ac.kr

1. 들어가며

본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첫째는 한국어사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고 인식되는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론이고, 둘째는 20세기 전반기에 주목되는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다. 발표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주최 측의 요청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최 측은 20세기 전반기, 좀 더 좁혀 말하면 1910년대 이후의 언어 양상에 대한 연구가 다른 시기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 시기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강조될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이 구성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발표의 2장은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론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다른 시기의 연구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인상을 주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견(短見)을 피력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포착되는 한국어 변화 흐름 중 {-어요} 결합형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내용은 2장에서 제기된 문제의식 중 하나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20세기 전반기 한국어의 연구와 한국어사 연구의 연속성

언어가 변화해 온 양상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 한 언어의 총체적 모습을 확인하는 역사적 연구는 모든 시기의 언어 양상을 마치 해당 시기에 대한 언어적 직관이 있는 화자가 그 시기의 양상을 공식적으로 기술하듯이, 각 시기의 언어 양상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상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일 뿐, 실제 연구가 이러한 이상을 완벽하게 현실화하지는 못한다. 언어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언어 자료는 특정 시기의 언어 양상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기에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언어 양상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기술할 만큼 풍부하지만 어떤 언어 양상의 변화는 연속적으로 확인된다기보다 돌출적이라고 할 만큼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사라지기도 한다. 더구나 언어 자료로 남겨진 특정 시기의 언어 양상은 현재의 우리가 자유롭게 생산해 내는 수많은 언어 표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성의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언어 변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앞서 언급한 연구적 이상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한국어의 변화 양상은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언어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은 각 시기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의 정도와 연구 대상이 되는 주제의 성격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각 시기의 언어 양상 혹은 그를 둘러싼 언어 외적 요인들이 가지는 특징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980년대까지의 한국어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주로 중세국어, 특히 15세기의 한국어에 중점이 놓여 진행되었다. 이후 중세국어의 언어가 현재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변화의 과정이 일어났던 근대국어의 언어에도 관심이 모였으며, 차차 표기 자료의 발굴에 따라 15세기 이전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고대국어에서 근대국어에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음운, 형태, 통사 등 언어학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다.

이에 비해 20세기 전반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19세기 말 이후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는 한국어 자체의 변화 과정보다는 다른 주제들에 좀 더 초점이 놓였던 것이 사실이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기에 대한 연구가 각 시기의 언어 양상, 그리고 언어의 변화 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는 조금은 이질적인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라는 시기가 한국 역사에서 근대화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시기라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이와 맞물려 한국어 연구의 측면에서도 언어 자체의 변화 양상보다는 맞춤법과 같은 언어 규범의 제도화 과정, 근대적 사전 편찬 과정, 근대적 언어학 개념의 도입과 적용,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에 따른 근대 어휘의 확산 등과 같이 언어 외적 요소와의 접점을 이루는 문제들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근대 어휘의 확산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제외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언어 변화에 대한 연구인 국어사 연구라기보다 국어학사 연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다른 시기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었던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에 따른 어휘의 확산에 대해서도 언어학 분야에서 어휘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기보다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논의가 주도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인상을 고착화하는데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언어 양상에 대한 연구가 외면되어 온 것만은 아니다. 이 시기의 언어 양상 중 가장 많이,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주제는 청자 높임법 체계와 관련된 연구이다. 이런 연구로는 고영근(1974ㄱ, 1974ㄴ), 이경우(1990/1998), 강지영(2007), 유필재(2014), 조은아(2013), 박정현(2015) 등이 있다. 이 외에도 1907년~1926년에 출생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방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 방언을 음운론적으로 연구한 유필재(2000/2006), 종합 잡지인 『삼천리』를 말뭉치로 구축하여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문장 구성을 연구한 안예리(2013), <고려대 구어 말뭉치: 20세기 전기>를 기반으로 한 일련의 계량적 연구들, 예를 들면 오재혁·장혜진·홍종선(2015), 유혜원(2015), 정연주·정경재·홍종선(2015), 신우봉(2016), 장혜진(2016), 도원영(2017)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있음에도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특정 주제에 편중되어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둘째는 특정 연구자 혹은 특정 연구자

그림만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한국어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논의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1910년대, 다시 말하면 신소설 자료들의 사례들까지만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층위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그것은 신소설 이후의 자료가 원시 말뭉치 수준으로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어적 직관을 가지지 못한 시기의 언어를 연구하는 역사적 연구에서 말뭉치가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현재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역사 자료 말뭉치는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하면서 구축된 말뭉치를 기반으로 일부 수정·보완된 것이며, 신소설 자료는 2000년대 초반 (주)텍스트코리아에서 구축한 것이 연구자들에게 널리 배포된 것이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역사 자료 말뭉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한국어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중세국어의 언어 양상이나 특정 자료 연구에만 국한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역사 자료 말뭉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 이후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시기를 넘나들며 한국어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의 연구들은 여전히 1910년대 후반 이후로 관심의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역사 자료 말뭉치가 신소설 자료까지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앞서 지적하였는데, 이 연구자들이 활용한 자료들은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조사·구축한 것이거나 연구자 그룹 단위로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구축된 말뭉치를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시기의 언어 자료에 대한 말뭉치 구축이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의 한국어에 대한 문법론적 연구는 청자 높임법 체계에 집중되었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청자 높임법 체계는 19세기 이후 해체와 해요체가 성립되면서 현재와 같은 체계를 이루게 되었는데, 화자와 청자의 사회언어학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자 높임법 등급의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먼저 주목받은 것은 20세기 초의 신소설 작품들, 그리고 서울 방언이 잘 구현된 것으로 알려진 『삼대』, 『천변풍경』과 같은 소설 작품들이었다. 이런 사례는 근대국어 시기의 언어 양상과 현재의 언어 양상 간의 가장 극적인 변화에 주목한 것이자, 특정 시기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의 언어 양상이 드러내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세기 전반기 한국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큰 과제 중 하나는 이 시기의 언어 양상에 익숙해지는 것과 동시에 이 시기의 언어가 보이는 특징과 변화의 모습을 포착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국어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정밀한 기술과 심도 있는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가 배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어사 연구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어요} 결합형의 문제

3장에서 {-어요} 결합형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2장에서 피력한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 {-어요} 결합형은 현재의 종결어미 {-에요} 및 {-세요}와 관련이 있는데, 이때 후자의 종결어미들이 확립된 시기가 20세기 전반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어요} 결합형의 문제는 한

국어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언어 양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를 시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현대국어의 {-어요}, {-에요}, {-세요}

현대국어 종결어미 {-어요}, {-에요}, {-세요}의 출현 환경을 <우리말샘>의 기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요 ~ -아요 ~ -여요': 용언 어간 뒤

가. 끝음절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 어간 뒤 → '-어요' [예] 먹어요.

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용언 어간 뒤 → '-아요' [예] 잡아요.

다. '하다'나 '하다'가 붙는 용언 어간 뒤 → '-여요' [예] 하어요. 노력하어요.

(1') 선어말어미가 선행하는 경우: 용언 어간, '이다, 아니다' 뒤

가. '-시-' 뒤: 본말 '-(으)시어요' → 준말 '-(으)셔요'

[예] 먹으시어요, 잡으시어요, 하시어요, 선생님이시어요, 아니시어요.

[예] 먹으셔요. 잡으셔요. 하시어요. 선생님이셔요. 아니셔요.

나. '-었-, -겠-' 뒤: '-어요'

[예] 먹었어요. 먹겠어요. 잡았어요. 잡겠어요. 학생이었어요. 학생이겠어요. 아니었어요. 아니겠어요.

(2) '-에요': '이다, 아니다' 뒤 [예]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3) '-(으)세요': 용언 어간, '이다, 아니다' 뒤

[예] 먹으세요. 잡으세요. 하세요. 선생님이세요. 아니세요.

'-에요'와 '-세요'의 형성 과정은 배주채(2001), 임석규(2012) 등에서 음운론적으로 검토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임석규(2012)에 정리된 문제 제기를 통해 이들 어미의 형성 과정에서 규명되어야 하는 지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4) 가. 일반론(임석규 2012: 194): ①활음화 ②축약

이어요 → 여요 → 에요

시어요 → 셔요 → 세요

① ②

나. 배주채(2001: 47): ①전설화

이어요 → 이에요 ; 여요 → 에요

① ①

임석규(2012)는 (4가)가 음운론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에요}와 {-세요}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요'의 경우 활음 첨가의 과정이 추가되어야 하며¹⁾, /jə/>/e/와 같은 축약 과정이 비음운론적 제약, 다시 말해 {-에요}나 {-세요}와 같은 경우로 한정되어 적용

된다는 점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4나)의 전설화는 /i, j/와 /j/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어야→*이에야'나 '마시+어야→*마세야' 등의 사례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태적 조건이 제한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임석규(2012)는 {-에요}와 {-세요}의 통시적 형성 과정을 (5가)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이때 전설화(/ə/>/e/)는 계사 '-이-'나 선어말어미 '-시-' 및 계사 '-이-'의 모음 /i/가 변한 반모음 /j/, 그리고 첨사 '-요'의 반모음 /j/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다만 전설화는 통시적 설명이므로, 공시적으로는 (5나)와 같이 '-에요'를 어휘부에 등재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5) 가. 통시적 변화: ①활음화 ②전설화 ③활음 탈락

이어요 → 여요 > 예요 ; 이어요 > 이에요

① ② ③

시어요 → 셔요 > 세요 → 세요

① ② ③

나. 공시적 과정

이+어요 → 이어요/여요 ; 이+에요 → 이에요

시+어요 → 셔요 ; 시+에요 → 세요

이러한 일련의 설명에서 통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점은 {-에요}와 {-세요}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i/>/e/ 전설화의 조건 및 이들 어미가 출현하는 시기의 양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검토함으로써 {-에요}와 {-세요}의 형성 과정에서 전제되는 비음운론적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20세기 전반기의 {-어요}, {-에요}, {-세요}의 양상

본고는 서울·경기 출신인 이인직, 이해조, 염상섭, 박태원의 소설 작품에서 {-어요}, {-에요}, {-세요}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자료의 목록은 <표 1>과 같고, 용례는 PhonConc 프로그램(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연구실 제작,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성우 교수 제공)과 EmEditor를 이용하여 1차 추출을 한 후, 직접 확인하며 해당 예들을 정리하였다.

<표 1> 자료 목록

분류 시기	작가	작품 수	작품명(저자, 연도)
1900년대	이인직 이해조	10종	『귀의 성』(이인직, 1906), 『고목화』(이해조, 1907), 『빈상설』(이해조, 1907), 『혈의루』(이인직, 단행본, 1907), 『구마검』(이해조, 1908), 『원앙도』(이해조, 1908), 『은세계』(이인직, 1908), 『철세계』(이해조, 1908), 『홍도화』(이해조, 1908), 『모란병』(이해조, 1909)
1910년대	이인직	11종	『박정화』(이해조, 1910), 『자유종』(이해조, 1910), 『화세계』(이해조,

1) 이런 지적은 (4가)의 과정이 '친구어어요→친구어여요→친구어에요'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학생어어요→학생어에요'와 같은 경우에는 활음 첨가가 추가되어야 하므로 계사 뒤의 '-어요>-에요' 과정이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해조		1910), 『구의산』(이해조, 1911), 『월하가인』(이해조, 단행본, 1911), 『치악산』(이인직, 1911), 『화의혈』(이해조, 1911), 『비파성』(이해조, 1912), 『옥호기연』(이해조, 1912), 『모란봉』(이인직, 1913), 『우중행인』(이해조, 1913)
1920년대	염상섭 박태원	21종	『표본실의 청개구리』(염상섭, 1921), 『E선생』(염상섭, 1922), 『암야』(염상섭, 1922), 『제야』(염상섭, 1922), 『죽음과 그 그림자』(염상섭, 1923), 『해바라기』(염상섭, 1923), 『금반지』(염상섭, 1924),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염상섭, 1924), 『진주는 주었으나』(염상섭, 1925-26), 『검사국 대합실』(염상섭, 1925), 『고독』(염상섭, 1925), 『윤전기』(염상섭, 1925), 『전화』(염상섭, 1925), 『조그만 일』(염상섭, 1926), 『초연』(염상섭, 1926), 『두 출발』(염상섭, 1927), 『밥』(염상섭, 1927), 『사랑과 죄』(염상섭, 1927), 『E부인』(염상섭, 1929), 『썩은 호도』(염상섭, 1929), 『해하의 일야』(박태원, 1929)
1930년대	염상섭 박태원	2종	『삼대』(염상섭, 1931. 1. 1. - 9. 17. <조선일보> 연재본), 『천변풍경』(박태원, 1938, 박문서관)

먼저 '-이다, 아니다'에 결합하는 {-어요}의 예를 살펴보자.²⁾ <표 2>를 보면 1910년대까지는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화를 겪은 '-야요'가 우세하지만, 1920년대 이후 전설화를 겪은 '-애요~-에요'가 우세해진다. 반모음 탈락을 겪은 '-애요~-에요'는 1920년대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지만, 1930년대 말의 『천변풍경』까지도 대표적인 결합형은 아니었다.

현대국어의 양상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것은 전설화를 겪은 결합형이 많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1920년대에는 음성 모음형인 '-여요, -에요'보다는 양성 모음형인 '-야요, -애요'가 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반모음 탈락을 겪은 결합형의 경우도 '-애요'가 좀 더 많이 보인다. 이런 경향은 『삼대』부터 조정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하여 『천변풍경』에 이르면 음성 모음형인 '-에요'로 나타난다.

<표 2> '-이다', '아니다'와 {-어요} 결합형의 출현 빈도

시기 \ 유형	반모음 첨가/반모음화	반모음 첨가/반모음화 후 전설화	전설화 후 반모음 탈락
1900년대	∅야요(6), 이야요(31) 아니야요(4)	이애요(1)	
	▶41예 (97.6%)◀	▶1예 (2.4%)◀	
1910년대	∅야요(5), 이야요(35) 아니야요(5)		
	▶45예 (100.0%)◀		

2) <표2>는 '-이다', '아니다'와 {-어요}의 결합형에서 어미에 나타나는 주요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한 것이며, 결합형 우측 괄호 안의 숫자는 용례 수이다. 음영 처리된 부분은 각 시기에서 빈도가 높은 결합형을 표시한 것이다. 이 기준은 이후에 제시되는 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표2>에 제시한 '-이다' 결합형은 '-이-' 탈락 유무에 따라 '∅'와 '이'로 구분하였으며, 일부 결합형은 표기를 고려하여 함께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야오'는 '이야요'에, '안이야요'는 '아니야요'에 포함시켜 제시하였다.

시기 \ 유형	반모음 첨가/반모음화	반모음 첨가/반모음화 후 전설화	전설화 후 반모음 탈락
1920년대	∅야요(14), 이야요(45) 아니야요(12)	∅애요(138), ∅예요(13) 이애요(43), 이에요(1) 아니애요~안애요(27), 안애요(1)	∅애요(4), ∅예요(6), 이애요(4) 아니애요~안애요(4), 아니애요~안애요(2)
	▶ 71예 (22.6%) ◀	▶ 223예 (71.0%) ◀	▶ 20예 (6.4%) ◀
『삼대』(1931)	∅야요(5), 이야요(7) 아니야요(5)	∅애요(57), ∅예요(3) 이애요(10) 아니애요~안애요(9) 안애요~아네요(3)	∅애요(2) 안애요(1)
	▶ 17예 (16.7%) ◀	▶ 82예 (80.4%) ◀	▶ 3예 (2.9%) ◀
『천변풍경』(1938)	∅야요(2)	∅예요(15) 아네요(8)	∅예요(5), 이애요~이애유(6) 아니애요(1)
	▶ 2예 (5.4%) ◀	▶ 23예 (62.2%) ◀	▶ 12예 (32.4%) ◀

다음으로 선어말어미 '-시-'에 결합하는 {-어요}의 예들을 살펴보자. <표3>은 '계시-, 잡수시-, 주무시-' 등과 같이 어간의 /시/가 선어말어미 '-시-'와 유사한 음운 현상을 보이는 어휘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선어말어미 '-읍시-'가 결합된 예들(예) 걱정을 합셔오 <박정화>, 어셔 맛나 보아 깁셔오 <구의산>은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선어말어미 '-시-'와 {-어요}의 결합형태 '-이다, 아니다'의 경우와 유사하게 1920년대부터 전설화를 겪은 결합형태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다만 <표 2>의 '-이다, 아니다'와 {-어요}의 결합형태에 비해 '-시-'와 {-어요} 결합형태의 경우는 전설화 후 반모음 탈락을 겪은 결합형태가 훨씬 더 우세하다.

<표 3> 선어말어미 '-시-'와 {-어요} 결합형태의 출현 빈도

시기 \ 유형	반모음 첨가	반모음화 (/ㅅ/ 뒤 반모음 탈락)	반모음화 후 전설화	전설화 후 반모음 탈락
1900년대	시야요(2)	셔요(72), 서요(3)	세요(5)	
	▶ 2예 (2.4%) ◀	▶ 75예 (88.2%) ◀	▶ 5예 (5.9%) ◀	
1910년대		셔요(83), 서요(1)	세요(3)	
		▶ 84예 (96.6%) ◀	▶ 3예 (3.4%) ◀	
1920년대		셔요(48), 서요(63)		세요(205)
		▶ 111예 (35.1%) ◀		▶ 205예 (64.9%) ◀
『삼대』(1931)		셔요(1), 서요(26)		세요(96)
		▶ 27예 (21.4%) ◀		▶ 96예 (76.2%) ◀
『천변풍경』(1938)		셔요(1)		세요(26)
		▶ 1예 (3.7%) ◀		▶ 26예 (96.3%) ◀

<표 2>와 <표 3>을 통해 1920년대부터 '-이다, 아니다' 및 선어말어미 '-시-'와 {-어요}의 결합형태에서 /ㅅ/ > /세/ 혹은 /ㅈ/ > /제/ 전설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20세기 전반기에 보이는 이러한 전설화

의 양상이 '-이다, 아니다' 및 선어말어미 '-시-'와 {-어요}의 결합형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두 환경이 아닌데도 전설화가 적용되는 {-어요} 결합형들은 용언 {있-, 없-}과 선어말어미 {-었-, -겠-}의 경우에 보인다. 앞에서 '-이다, 아니다'와 {-어요} 결합형의 전설화(<표 2>)와 선어말어미 '-시-'와 {-어요} 결합형의 전설화(<표 3>)가 1920년대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는데, <표 4>에 보듯이 용언 {있-, 없-}, 선어말어미 {-었-, -겠-}과 {-어요}의 결합형에 나타나는 전설화도 같은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³⁾

<표 4> {있-, 없-}, {-었-, -겠-}과 {-어요} 결합형의 출현 빈도

시기	유형	{있-, 없-}		{-었-, -겠-}	
		전설화 X	전설화 O	전설화 X	전설화 O
1900년대	서요(14)			서요(39)	세요(3)
	▶ 14예 (100.0%) ◀			▶ 39예 (92.9%) ◀	▶ 3예 (7.1%) ◀
1910년대	서요(23), 서요(1)			서요(66), 서요(1)	세요(1), 세요(1)
	▶ 24예 (100.0%) ◀			▶ 67예 (97.1%) ◀	▶ 2예 (2.9%) ◀
1920년대	서요(53)	세요(27)		서요~어요(86)	세요(117)
	▶ 53예 (66.3%) ◀	▶ 27예 (33.8%) ◀		▶ 86예 (42.4%) ◀	▶ 117예 (57.6%) ◀
『삼대』(1931)	서요(19)	세요(16)		서요~어요(47)	세요(73)
	▶ 19예 (54.3%) ◀	▶ 16예 (45.7%) ◀		▶ 47예 (39.2%) ◀	▶ 73예 (60.8%) ◀
『천변풍경』(1938)	어요(3)	에요(9)		어요(10)	세요~에요(20)
	▶ 3예 (25.0%) ◀	▶ 9예 (75.0%) ◀		▶ 10예 (33.3%) ◀	▶ 20예 (66.7%) ◀

그렇다면 {-어요} 결합형에 보이는 것과 같은 전설화가 다른 경우에도 확인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전반기의 자료에서 {-어요} 결합형이 아닌데도 /ㄱ/나 /ㄷ/를 두음으로 가지는 어미의 결합형에서 전설화가 나타나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6) 가. {-시-}+{-어야}

- a. 약주는 취하섯드구면만은 어지간히 사람을 못 살게 구르세야지요! <진주는 주었으나>
- b. 제 사정도 생각해 봐 주세야 아니 합니까! <삼대>
- c. 우리들 술 한 잔 주세야죠. <천변풍경>

나. {-시-}+{-어서}

- a. 그러타고 영희 씨 말씀처럼 「지각 잇는 사람은 모든 관습에서 버서나야 한다」고 하세서야 되겠습니까 <해바라기>
- b. 내 걱정은 마시고 어서 가세서 주므세요 <삼대>

다. {-시-}+{-었-}

- a. 그동안 아마 서량을 보섯습니까 <비파성>
- b. 언제 드러오섯소? <진주는 주었으나>
- b'. 그래 무어라고 하섯세요? <전화>

3) <표 4>에 제시된 결합형이 /ㄱ/를 포함한 것으로 제시된 것은 {있-, 없-}, {-었-, -겠-}의 말음 /ㄱ/가 표기에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요, -서요, -세요, -세요'는 '잇서요, 잇서요, 잇세요, 잇세요'의 예를 보인 것이며, '-어요, -에요'는 '잇어요(혹은 잇어요), 잇에요'의 예를 보인 것이다.

- c. 엇쟁든 애들 쓰셋습니다 <삼대>
- c'. 그런데 웨 안 부치셋서요? <삼대>
- d. 참, 게 드셋지. 그래, 오늘 빠지건 한턱 허세압니다. <천변풍경>
- 라. {있-}+{-어야}
- a. 더구나 딸자식이라 꼭 어머니가 있에야만 될 것 걸단 말이야. <천변풍경>
- 마. {-었-}+{-어오-}
- a. 안이와요. 정말 나가섯세와요 <삼대>

(6가, 나, 다)는 선어말어미 {-시-}에 접속어미 {-어야, -어서}가 결합하거나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한 예들인데, 이 예들에서 전설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전설화가 나타나는 예들은 같은 환경에서 전설화가 나타나지 않는 예들과 비교하면 그 수는 매우 적으며, (6다a)를 제외하면 1920년대에 들어서야 확인된다. (6라)는 용언 {있-}에 접속어미 '-어야'가 결합한 예인데, 이런 환경에서 전설화를 경험한 예들은 『천변풍경』에서만 확인된다. (6마)는 선어말어미 {-었-}에 겸양의 선어말어미 {-어오-}(< -으오-)가 결합한 예인데, 이런 환경에서 전설화를 경험한 예들은 『삼대』에서만 확인된다.

그러나 (6)과 같은 예들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선어말어미 {-시-}에 결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설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특정 자료의 극히 적은 예에 국한된다.⁴⁾ 선어말어미 {-시-}에 결합한 경우도 종결어미 {-어오}와 결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설화가 나타나지 않는 예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선어말어미 {-시-}가 {-어오}와 무관하게 전설화의 기제로 작용했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을 듯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표 4>에 제시된 {있-, 없-}, {-었-, -겠-}과 {-어오} 결합형에서 전설화의 예들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석규(2012: 207)는 중부 방언의 '가섯에요, 먹겠에요, 뭐랬에요, 간땀에요, 건졌에요, 사람이었에요' 등의 예가 "첨사 '-요'가 e를 유도한 듯한 형태"라고 하였다. 그러면 현재의 중부 방언에 나타나는 '-었에요, -겠에요'와 같은 예들에서 '-요'가 전설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중부 방언의 '-었에요, -겠에요'와 같은 예들에서 '-요'가 전설화를 유도한 것으로 본다면, '-었-, -겠-' 뒤라는 비음운론적 정보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현대국어의 '-에요, -세요'에 대한 설명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즉 '-요'만을 전설화의 기제라고 했을 때 같은 환경에서 전설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또한 {있-, 없-}, {-었-, -겠-}과 {-어오}의 결합형이 전설화를 보이는 시기나 출현 빈도는 {-이다, 아니다}나 {-시-}와 {-어오}의 결합형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표 5>는 앞에 제시한 <표 2>, <표 3>, <표 4>의 빈도만을 다시 정리한 것인데, 이를 보면 {-이다, 아니다}, {-시-}와 {-어오}의 결합형이 전설화된 예들은 1920년대부터 비전설화 결합형보다 2~3배 정도로 더 많이 나타나지만,

4) 본고에서 조사한 (6)과 같은 예들의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 가. {-시-}+{-어야}: 1920년대 1예, 『삼대』 2예, 『천변풍경』 3예
- 나. {-시-}+{-어서}: 1920년대 1예, 『삼대』 4예
- 다. {-시-}+{-었-}: 1910년대 1예, 1920년대 5예, 『삼대』 4예, 『천변풍경』 2예
- 라. {있-}+{-어야}: 『천변풍경』 4예
- 마. {-었-}+{-어오-}: 『삼대』 1예

{있-, 없-}, {-었-, -겠-}과 {-어요}의 결합형이 전설화된 예들은 출현 시기도 이보다는 좀 더 늦고 같은 시기의 {-이다, 아니다}, {-시-}와 {-어요}의 결합형에 비해 빈도도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5> 전설화된 {-어요} 결합형의 출현 빈도

시기	유형	{-이다, 아니다} +{-어요}		{-시-} +{-어요}		{있-, 없-} +{-어요}		{-었-, -겠-} +{-어요}	
		전설화X	전설화O	전설화X	전설화O	전설화X	전설화O	전설화X	전설화O
1900년대		97.6%	2.4%	90.6%	5.9%	100.0%	0.0%	92.9%	7.1%
1910년대		100.0%	0.0%	96.6%	3.4%	100.0%	0.0%	97.1%	2.9%
1920년대		22.6%	77.4%	35.1%	64.9%	66.3%	33.8%	42.4%	57.6%
『삼대』(1931)		16.7%	83.3%	21.4%	76.2%	54.3%	45.7%	39.2%	60.8%
『천변풍경』(1938)		5.4%	94.6%	3.7%	96.3%	25.0%	75.0%	33.3%	66.7%

이런 상황은 {-이다, 아니다}, {-시-}와 {-어요}의 결합형에서 전설화가 일어난 이유와 {있-, 없-}, {-었-, -겠-}과 {-어요} 결합형에서 전설화가 일어난 이유가 달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다, 아니다}나 {-시-}가 {-어요}와 결합할 때 전설화 기제로 계사나 {-시-}의 모음 /ㅣ/의 특수성을 언급하곤 하는데, 이들의 모음 /ㅣ/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화 혹은 반모음 첨가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있-, 없-}, {-었-, -겠-}의 경우는 {-이다, 아니다}나 {-시-}의 경우와는 다르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세국어의 치음 /ㅅ/가 근대국어 시기에 경구개음 단계를 거쳐 치조음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는 가설이다. 근대국어 시기에 /ㅅ/가 경구개음이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ㅅ/ 아래의 반모음 탈락 현상이 있다. 20세기 전반기, 특히 1900년대와 1910년대의 신소설 자료에는 /ㅅ/ 아래의 반모음 탈락 현상과 관련한 과도 교정의 예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선어말어미 '-시-'와 두음이 /ㅣ/인 어미의 결합형인 '-셔, -섯-'이 '-서, -섯-'으로 나타나거나 접속 어미 '-어서'가 '-어셔'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예들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표 4>에 제시된 결합형들을 보면, {있-, 없-}과 {-어요}가 결합했을 때 '잇서요, 업서요'뿐만 아니라 '잇셔요, 업셔요'가 나타나고 {-었-}과 {-어요}가 결합했을 때 '-었서요'뿐만 아니라 '-었셔요'가 나타나며 {-겠-}과 {-어요}가 결합했을 때 '-겠서요'가 나타나는 것은, 이들 결합형의 /셔/를 /셔/의 과도 교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있-, 없-}, {-었-, -겠-}과 {-어요}의 결합형은 '-서요'뿐만 아니라 '-셔요'로도 나타나게 된 것이고, 과도 교정으로 인한 이 같은 결합형의 공존은 선어말어미 '-시-'와 {-어요} 결합형의 변화, 즉 전설화된 '-세요~-세요' 같은 예들의 출현과 맞물리면서 <표5>와 같은 경향을 드러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전반기의 {-어요}, {-에요}, {-세요}의 양상을 정리하면서 언급할 사항이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통계에서는 1900년대와 1910년대의 신소설 자료와 1920년대 이후의 자료가 {-어요} 결합형의 전설화 경향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에 제시했듯이 본고에서 이용한 1900년대와 1910년대의 자료는 이인직, 이해조의 소설이고, 1920년대 이후의 자료는 염상섭, 박태원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본고에서 이용한 작품들을 썼던 시기를 보면, 이들의 작품에 드러난 언어 양상이 세대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이인직(1862-1916)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집필을 하였고 이해조(1869-1927)는 30

대 후반에서 40대 전반에 집필을 하였는데, 이들의 20대는 19세기 말이었다. 반면 염상섭(1897-1963)은 20대 전반에서 30대 전반에 집필을 하였고 박태원(1910-1986)은 10대 말에서 20대 후반에 집필을 하였는데, 이들의 20대는 1910년대 말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기간이다. 어떤 화자의 언어 습관이 10대에서 20대에 걸쳐 확립된다고 생각할 때, 이 네 작가의 언어는 신·구 세대의 언어 차이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본고에서 정리한 {-어요}, {-에요}, {-세요}의 통계가 1910년대와 1920년대의 경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들 작가의 세대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가 염상섭과 박태원의 개인 언어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은 1920년대에 작품 활동을 했던 다른 서울·경기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1920년대에 20대였던 방정환(1899-1931), 박영희(1901-?), 심훈(1901-1936), 고한승(1902-1950), 나도향(1902-1926)의 작품 중 1920년대 작품 39종을 조사해 보면, 염상섭과 박태원의 1920년대 작품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차이가 있다면 염상섭과 박태원의 작품은 전설화된 {-었-, -겠-}과 {-어요}의 결합형이 빈도가 좀 더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6> 전설화된 {-어요} 결합형의 출현 빈도
: 1920년대 서울·경기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기	유형	{-이다, 아니다} +{-어요}		{-시-} +{-어요}		{있-, 없-} +{-어요}		{-었-, -겠-} +{-어요}	
		전설화X	전설화O	전설화X	전설화O	전설화X	전설화O	전설화X	전설화O
염상섭·박태원		22.6%	77.4%	35.1%	64.9%	66.3%	33.8%	42.4%	57.6%
그 외 작가		31.6%	68.4%	31.6%	68.4%	67.2%	32.8%	63.7%	36.3%

20세기 전반기의 {-어요}, {-에요}, {-세요}의 양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삼대』와 『천변풍경』에서 드러나는 차이이다. <표5>를 보면 『삼대』보다는 『천변풍경』에서 전설화 경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다, 아니다}, {-시-}와 {-어요}의 결합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있-, 없-}이나 {-었-, -겠-}과 {-어요}의 결합형에서도 『천변풍경』의 전설화 경향이 좀 더 강하다. 특히 {있-, 없-}과 {-어요}의 결합형은 『삼대』까지는 전설화되지 않은 경우가 더 우세하였으나 『천변풍경』에서는 전설화된 경우가 더 우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본고에서 조사한 1920년대 작품 21종이 염상섭과 박태원의 것이기는 하나, 박태원의 작품은 『해하의 일야』(1929) 하나뿐이다. 자료가 이처럼 편중된 것은 박태원의 본격적인 작품 활동이 1930년대에서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박태원의 20대가 1930년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염상섭의 『삼대』와 박태원의 『천변풍경』이 보이는 전설화 경향의 차이가 앞에서 지적했던 세대 차이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러한 차이가 『삼대』와 『천변풍경』이 드러내는 작품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들 작품에서 전설화된 예들은 {-어요} 결합형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두 대화 혹은 독백의 문장들에서 확인된다. {-어요} 결합형은 해요체의 종결형이므로 대화나 독백에서 확인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전설화도 모두 대화나 독백의 문장에서 확인된다는 것은 이 당시의 어미 결합에서 보이는 전설화가 서울·경기 지역의 구어에서 활발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런데 『삼대』는 서울의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이고 『천변풍경』은 서울의 청계천 근처에 살던 서민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하고, 이 두 작품의 대화(혹은 독백)이 당시의 구어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두 작품에 묘사된 대화문의 문장들은 당시의 구어를 반영한 것이자 계층의 차이를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삼대』와 『천변풍경』에서 {-어요} 결합형의 전설화 양상이 드러내는 차이를 전설화를 겪은 {-어요}형이 서민층의 언어에서 좀 더 세력이 강했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온당한 것이라면, {-어요} 결합형 중 전설화를 겪은 형태가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지어 {-이다, 아니다}나 {-시-}와 {-어요}의 결합형인 {-에요}, {-세요}만이 표준어로 인정되고 그 외의 결합형들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에요}와 {-세요}는 계층의 차이를 넘어서서 확산되었던 반면, 그 외의 전설화를 겪은 {-어요}형들은 서민층에 국한된 것 혹은 서민층 언어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표준어 규정>에서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으)세요~-(-으)셔요’와 ‘-이에요~-이어요’ 항목에 대한 해설은 재고될 필요가 있는 듯하다.

(7) 가. 「표준어 규정 해설」(1988: 43)

‘-(으)세요/-(으)셔요, -이에요/-이어요’에서 전통 어법은 ‘-(으)세요, -이에요’였는데, 광복 후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으)셔요, -이어요’형을 씀으로써 특히 젊은 층에 그것이 상당히 보편화하였다.

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2018: 206)

- a. ‘-(으)세요/-(으)셔요, 이에요/이어요’에서 전통 어법은 ‘-(으)세요, 이에요’였는데, 광복 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으)셔요, 이어요’형을 쓴 이후로 보편화되었다. 그에 따라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았다.
- b. ‘이에요/이어요’는 복수 표준형이다. 예전에는 ‘이에요’를 많이 썼는데, ‘이어요’도 널리 쓰이므로 표준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설명은 전통 어법에 따른 형태 혹은 예전에 많이 쓰던 형태를 ‘-(으)세요, 이에요’로 보고 ‘-(으)셔요, 이어요’를 교육 과정의 영향 때문에 확산된 형태로 보고 있다. 이때 “전통” 혹은 “예전에 많이 쓰던”과 같은 설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지만, 위와 같은 설명이 사실과 부합한 설명이 되려면 이때의 “전통” 혹은 “예전에”는 1920~1930년대 이후여야 한다. 광복 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으)셔요, 이어요’형을 썼다는 설명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광복 후의 시기까지도 ‘-(으)셔요, 이어요’형은 어법에 맞는 것으로, ‘-(으)세요, 이에요’는 어법으로 보면 기묘하나 일상적으로 쓰이던 형태로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교과서는 일상적인 구어보다는 어법에 맞는 문어를 제시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발표는 20세기 전반기 한국어 연구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첫 번째 주제는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

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가 한국어사 연구에서 단절된 시기 혹은 공백으로 남겨진 시기가 아니라 한국어의 역사적 변화 과정 속에서 좀 더 유의미한 시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20세기 전반기, 특히 1920년대 이후의 자료가 말뭉치로 구축될 필요가 있고,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가 드러내는 여러 양상 중 역사적 연구의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고찰될 수 있는 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는 현상으로 {-어요} 결합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어요} 결합형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에요}, {-세요}와 같은 종결형들의 확산 과정들을 정리하였다. 본고의 조사 결과는 여러 면에서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의 {-어요} 결합형들이 보였던 변화의 대략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좀 더 치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지영(2007), 20세기 초기 국어 상대경어법의 등급과 실현 양상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근(1974ㄱ),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권 1호, 118-157쪽,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고영근(1989: 246-301)에 재록.]
- 고영근(1974ㄴ), 현대국어의 준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권 2호, 66-91쪽,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고영근(1989: 359-400)에 재록.]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국립국어원(2018),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 국립국어원.
- 국어연구소(1988),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연구소.
- 김현주(2012), 종결어미 {-으세요}의 형성과 화행의 편향적 관련, 형태론 14권 2호, 184-207쪽, 형태론.
- 도원영(2017), 20세기 전기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감탄사에 대한 어휘론적 고찰, *Journal of Korean Culture* 36권, 49-74쪽,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 박정현(2015), 《삼대》의 친족 관계에 나타난 상대경어법의 등급과 실현 양상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주채(1994/1998),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흥방언 음운론』(1998, 태학사)로 출판.]
- 배주채(2001), 지정사 활용의 형태음운론, 국어학 37집, 33-59쪽, 국어학회.
- 신우봉(2016), 20세기 전기 구어 자료에 나타난 모음상승 연구, 어문논집 76권, 233-261쪽, 민족어문학회.
- 안예리(2013),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 대중종합지 『삼천리(1929~1942)』의 말뭉치 언어학적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재혁·장혜진·홍종선(2015), 20세기 전기 구어 자료에 나타난 종결형 양상 -대화 음성 자료를 대상으로, 어문논집 73권, 183-221쪽, 민족어문학회.
- 유필재(2000/2006),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방언의 음운론』(2006, 월인.)으로 출판]
- 유필재(2014), 현대국어 하오체의 변화에 대하여, 국어학 70집, 59-83쪽, 국어학회.
- 유혜원(2015), 20세기 전기 구어 자료의 격조사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53권, 399-429쪽,

우리어문학회.

이경우(1990/1998), 최근세국어에 나타난 경어법 연구: 개화기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근세국어 경어법 연구』(1998, 태학사.)로 출판]

임석규(2012), '-세요', '-이에요'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우리말글 56집, 191-212쪽, 우리말글학회.

장혜진(2016), 20세기 전기 구어에 나타난 정도부사의 실현 양상, 한국어학 71권, 153-179쪽, 한국어학
회.

정연주·정경재·홍종선(2015), 20세기 전기 구어 자료에서의 "안" 부정법, 어문논집 75권, 109-145쪽, 민족
어문학회.

조은아(2013), 《삼대》의 사회관계에 나타난 상대경어법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